

연중 제 33 주일
(평신도 주일)

제1독서 : 잠언 31,10-13,19-20,30-31

제2독서 : 데살 I 5, 1-6

복음 : 마태 25, 14-20

숲정이

이 주일의 화답송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이는

복되도다.



대희년과 평신도의 자세



전주교구 평협회장/김형열(바오로)

오늘은 제32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40일 후면 대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희년이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벅찬 은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바쳐 준비합시다.

대희년을 통과 의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는 「은총의 해」이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희년의 정신인 「원상회복」을 위한 우리의 실생활과 연관지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심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귄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첫째 : 희년의 정신을 올바르게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평신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중 하나는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 지식 등에 대한 지적 빈곤입니다. 희년의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리하여 새천년기에 요청되는 새 복음화의 사도로써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 참회의 예절에 적극 참여합시다. 희년의 기쁨은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와 회개의 기쁨(제삼천년기 33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리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며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깊이 성찰하고 가정에서, 소공동체에서 나아가 본당공동체에서도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참회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2천년 대희년을 뜻있게 맞이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셋째 : 대희년 맞이 실천운동으로 제시된 「새날, 새삶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우리 자신들이 복음정신으로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새날, 새삶운동」의 구체적인 실천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배우고 익힌 것을 가정과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희생하고 봉사하는 평신도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사회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다가오는 이천년 은총의 대희년에 보여줍니다.



소 리

내 삶의 흔적은 어디에

이 덕 자(안젤라)

미국 인디언들은 11월의 이름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불렀다 한다.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았던 그들은 낙엽 지는 것이 다음 생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살았다. 교회에서는 이달을 위령성월로 정하여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새 삶을 바라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 둘은 죽음을 통하여 새 삶을 추구한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본다. 내 삶의 흔적을 어떤 식으로 남겨야 할 것인가.

호주의 원주민들은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함께 있던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들판으로 나간다고 한다. 메마른 들판에서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독수리와 동물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어 그 동안 그들이 먹고 살기위해 죽었던 수많은 동물들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한다. 자연에서 얻은 만큼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그들의 철저한 순환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미국 인디언들이나 호주 원주민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는 인간의 힘이 자연을 다스리고 변형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들은 진정한 생존이 대지의 모든 생명들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지가 인간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대지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지가 인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97년 말 현재 묘지 면적이 전체 택지 면적의 절반이 넘으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의 묘지로 잠식되고 있다고 한다.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서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 더 넓다고 한다. 이제 50년 후에는 어디에도 묘지를 쓸 곳이 없게 된다고 하니 걱정스런 마음이 앞선다.

요즘 사회에서는 장묘 문화를 바꾸기 위해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묘지강산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인데, 교회의 영혼과 육신의 부활사상이 걸림돌이 되기 쉽다. 많은 신자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활한 육신은 생전의 육신이 아니라고 하니 그것도 별 문제는 안 되는 것 같다.

하느님은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때는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나는 그저 자연의 일부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삶의 흔적은 나를 아는 이들의 마음속과 하늘나라에 쌓여 있을 터이니 굳이 묘지라는 내 흔적을 이 좁은 땅에 남겨 놓아 후손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 대신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현재에 충실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싶다.

숲정이 산책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해설(10)

제8절 : “성령을 믿으며”(683-747항)

김선태 신부/ 가톨릭 신학원 교리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큰 의심없이 성령을 믿는다. 그러나 정작 ‘성령이 누구이신가?’ 하고 물으면, 많은 경우 대답하기를 주저한다. 그리고 대답한다해도 빗나가기가 일쑤다.

성령은 과연 어떤 분인가? 이를 사도신경의 맥락에서 살펴보자. 신경은 성부와 성자의 존재를 먼저 각각 언급한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의 존재를 다룬다(684항 참조). 이런 순서는 성령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신경은 성령을 소개하기 이전에, 성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공허하게 들린다. 세상이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불의와 거짓, 폭력과 고문, 기아와 고통 등이 난무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의 죽음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구원하셨단 말인가?’ 하고 묻는다.

이런 물음에 교회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대신경)하고 대답한다. 성령은 곧 ‘세상의 구원에 관련된 분’이라는 뜻이다. 이미 시작된 세상의 구원을 바로 성령의 활동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대답으로 교회는 두 가지 주장을 거부한다. 첫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유다교의 주장이다. 둘째는 세상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여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첩경이라고 여기는 영지주의(靈智主義) 주장이다. 이 주장들에 대항하여 교회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고(요한 3,16-17 참조), 이미 시작된 세상의 구원을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고 대답한다(702~741항 참조).

성령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힘’이다(735항 참조). 그러기에 성서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상징은 모두 생명에 관계되는 물, 기름부음, 불, 빛, 손가락 등이다(694-701항 참조). 예수께서 직접 그분을 부르셨던 호칭, 곧 ‘협조자’(Paracitus)는 본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결으로 불려온 분”(ad-vocatus)이라는 뜻이다(692항 참조).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그분은 특히 두가지 방식으로 생명을 주신다. 그

첫째는 하느님께 대한 개방이다. 성령은 우리를 하느님께 이끄시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갈라 4,6)로 부르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1고린 12,3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곧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신다(683항 참조). 성령의 도움으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느님과 일치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둘째는 이웃에 대한 개방이다. 성령은 하느님과 일치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형제적 친교를 나누도록 도와주신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여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말로 이야기했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놓고 함께 사용하였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2,1-13, 43-47)가 이를 잘 말해준다. 성령은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여시어 이웃에게로 향하게 도와주신다. 하느님과 일치하여 누리는 생명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생명이 더 커지도록 도와주신다(갈라 5,13; 736항 참조).

이처럼 하느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온전히 개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695, 727항)는 말이 그분에게 적합하다. 그분은 성령에 의해 하느님께 남김없이 순종하셨고, 인간을 철저히 사랑하셨던 결과 부활을 누리셨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730항 참조).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셨다(요한 20, 22 참조).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깊이 결합시키시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곧 하느님과 이웃을 철저히 사랑하는 일에 지금 여기에서 헌신하도록 도와주신다(733항 참조).

그러므로 신경의 제8절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기적과 방언, 예언 등의 카리스마보다는 성령에 의한 그리스도의 일상 삶을 사실상 강조하고 있다. 일상에서 하느님께 철저히 순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곧 성령에 의한 삶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 구원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와 이웃과의 일치로 깨달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신경은 제9절 이하에서 잘 언급하고 있다.

주님이 계시기에

대학병원 봉사 체험기(환자와 함께 하면서)



대학병원 자원봉사자 / 이재열(리디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을때 저로 하여금 한가함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님, 찾으며 기도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에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깨달았을때 대학병원 자원봉사자로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원목수녀님의 말씀을 듣고, 또 환자한분한분 소개를 받을때는 겁이 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수녀님 뒤를 따랐던 10년전 일을 생각하니 감개무량 합니다. 그렇게 부족한 저를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어 앓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항상 조배실에서 주님께 의탁하고 병실에 들어서지만 그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데, 주님께서서는 저홀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셨기에 환자들을 편하게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연중에 환자 몇분들과의 일화를 적어봅니다.

미신자였던 환자가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느님을 믿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하는일도 있어 영세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또 한분은 학생때부터 성서를 많이 읽어 누구보다도 잘 안다하며 겁을 주던 환자(간경화)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의탁하고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갔을때 이기적인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순한 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봉사자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또 간병하면서 고생하는 아내에게 신경질만 내던 그가 아내의 손을 잡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지었고 죽음이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하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생명을 더 연장 시켜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고 또 죽음이 온다해도 두려움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행복하다' 고요, 얼마나 기쁜지, 환자 가족들과 기쁨을 나눈일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환자도 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말기 암환자입니다. 어떤말로 위로를 해야하나 안타깝지만 옆에 함께 있어주면서 얘기를 들어주고 말씀을 들려주면 어느사이 서로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한자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 찾아갔습니다. 애절한 마음을 함께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손을 잡고 있는데 그 자매님은 애타게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면서 제 얼굴을 기억에 남기기라도 하듯 더듬 더듬 더듬을때 제 깊은 마음속에서 복받쳐 오르는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불을 서로 부비며 속으로 울고 또 울던 일, 그는 바로 선종하셨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또 온몸에 병이란 병은 다 짊어지고, 들어온 행려 환자 이런 모습으로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 오시는구나. 생각하고 정성껏 간병하면서 오물을 치워주고 닦아주던 일 또 너무 가난해 마지막 입고갈 옷한벌 없는 환자들, 그들을 위하여 저희 봉사회에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며 장례까지 치루어 주어 야 했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제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었으며, 저는 어느사이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이들에게 강복 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시고 또 이시간에도 임종을 맞는 모든이들에게 선종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주시고, 편안한 안식을 주소서. 하고 자연스레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미와 감사를 받으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저의 희망이요, 피난처시요. 또한 저의 굳센 보루가 되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병자사목에 협조하실 분
 사랑의 다리 후원 병자 사목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대학병원 천주교 원목실 ☎ 250-1336
 미사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장소 : 지하 세미나실, 김치삼 신부님
 원목 이비비나 수녀님

임실 동충하초 연구소
 항중양 면역증강
 허약체질 개선, 노화방지, 만성피로
 암환자, 천식, 결핵, 황달, 당뇨, 고혈압
 소장 김 형 권(필립보)
 ☎ 임실 (0673) 644-7334~5
 전주 (0652)213-4131~2

평화방송 TV ch 33
『세미사해설』비디오 테이프 출시
 『세미사해설』의 전례에 의해 제작된 『세미사해설』
 · 미사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 미사의 모든 공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 가격 : 20,000원(우송료 포함)
 - 구입문의 : 평화방송, 평화신문 영영국
 ☎ (02)2270-2541 FAX 2270-2549

지동차보험 전문회사
LG화재총괄법인 대리점
 (주)에이플러스원 전북사업본부
 이 성 기(세베리노)
 정 성 욱(리드비나)
 서신동 천주교 신협 3층
 ☎ (0652) 251-3930~2

성 가 정 식 품
 전통고추장, 된장, 간장
 각종 장아찌류 판매
 김 만 중(비아돌)
 이 점 순(베닐다)
 순창군, 읍 민속마을 265-22
 ☎ (0674)653-3382 FAX 653-3398
 H · P 011-674-3382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징”

교황님께서 “세속주의의 도전”이라고 표현하셨듯이, 이 시대는 참으로 정결한 삶, 단순하고 소박한 삶,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는 반대의 삶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 거센 조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하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삶과 존재로 증거해야 하는 이중의 의무를 느낀다. 이러한 맥락에서 희년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세가지 면으로 종합해 보자 한다.

첫째, “쇄신의 표징”이 되라는 소명이다.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쾌락과 개인주의로 불안정하게 떠도는 금세기의 세상 한 가운데 우리 역시 살고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러므로 우리 존재와 삶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을 그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살펴본 다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세상을 밝히는 쇄신의 표징이 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를 보고 우리 이웃들도 그들의 사람을 바꾸고 싶은 열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가치이시며 “인류 역사 전체의 열쇠와 중심 목적이심”을 증거할 소명을 받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거슬러 단순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세상이 알도록 해야 한다. 바오로 사도처럼, 우리도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하며,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발에 문힌 보물을 산 루카복음의 장사꾼처럼, 우리도 우리의 전적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가치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희년을 맞이 위한 수도자 모임의 후속조치로 나온 「봉헌생활」에서 교황님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수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희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과 기쁨의 표징”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 거룩함이란 다른 여느 것과 구별되어 하느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께 속하여 있을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매일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천상 기쁨이 번져 나온다. 이러한 거룩함과 기쁨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징이 될 것이고, 그러한 우리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표징이 될 것이다.

기쁨과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은 1월 4일 밤이었습니다.

요심이 (1371) 김병오



은경축 행사

서석구사도요한신부

일시 : 11월 2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천주교 우전성당

하루 피정

성 빈센트 드 벨 재비의 수녀회

일시 : 11월 21일(주일) 오전 9시

(매월 셋째주일)

장소 : 수원지동본원

(성 빈센트 병원 옆)

문의 : (0331) 241-215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거동 93~93

백마익스프레스

· 포장이사 · 일반이사 · 용달사업부
· 고층사다리보유 · 24시간 인부대기
· 반포장 ·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정 현(마 르 코)
인 정 미(프란치스카)
☎ (0652) 253-2452 H · P019-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성소모임

성 빈센시오 바오로 사랑의 딸회

일시 : 21일(주일) 오후 2시

(매월 셋째 주일)

장소 : 군포 본원

문의 : (0343) 452-9659

성소담당자 호출번호 : 012-1120-9547

성소모임

예수 성심 전교수녀회

주제 : 너, 어디 있느냐?

일시 : 21일(주일) 오후 2시

(매월 셋째주일)

장소 : 삼천동 성당 수녀원

문의, 상담 : (0652) 226-3487

성소모임

서울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일시 : 11월 21일 오후 2시

(매월 셋째 주일)

장소 : 동국 APT 106동 104호

(숲정이 성지 옆)

문의 : (02)922-9004/BP015-127-3177
서울시 성북구 돈암 2동 413-7(우) 136-062
성소상담 언제든지 가능

사 목 단 상



추사이망, 追思以亡인가, 追死以忘인가?

한 상 갑(바오로)

김병엽 신부님, 신부님께서 우리 곁을 훌쩍 떠나신 지 벌써 21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십여 일전에 성심여중 학생들과 치명자산을 다녀오는 길에 김영태 신부님의 안내로 신부님의 무덤을 찾아 잠깐 기도했습니다. 성직자 묘지 맨 가 줄에 말없이 누워 계신 신부님을 뵈오니 만감이 교차하여 몇 자 적습니다.

묵은 '숲정이' 묶음을 뒤적이니 신부님께서 쓰신 글이 눈에 띕니다. '追思以亡-追死以忘, 신부님은 죽은 지 5년만 지나면 제삿날도 없어!' (80.11.23)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사경을 헤매던 노사제의 딱한 심경, 어느 새사제의 첫 미사에서 들은 강론말씀, 그리고 신부님의 다짐을 적으신 듯 합니다. 내용이 조금은 무거워서 처음엔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마무리 글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망은 마십시오.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사제가 갈 길은 스승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입니다. 죽으면서 즐겁게 웃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죽으면서 웃어야 하기 때문에 가끔 독방에서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신부님께서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한 순간 힘들어 하셨겠지만, 평소 삶의 모습으로 보아 틀림없이, 아버지를 뵈는 기쁨에 웃으셨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을 적에 주교님께서 신부님 유언 내용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뵈적 있습니다. “교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화

장하여 그 재는 산림 성장의 비료로 하면 좋겠다.”라는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부님 뜻대로라면 신부님 흔적은 아무 데도 없게 되고, 그리 되면 신부님을 그리는 사람들이 찾을 곳도 없게 되겠기에, 그것이 주교님 마음에 크게 걸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신부님의 무덤을 만드셨습니다. 아마 무덤 마저 없었더라면 저도 문득 문득 생각이나 하다가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무덤이 있어 치명자산을 찾았다가 내려오는 길에 신부님을 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걸 제 마음만이 아닐 것입니다.

신부님, 요즈음 우리 나라는 장묘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에 계신 여러분들이 화장에 대한 찬성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주교님께서도 그리하셨다는 보도가 있어 또한 기쁩니다. 어서 빨리 우리 교구에도 납골당이 마련되어 좁은 국토를 걱정하는 마음과 돌아가신 분들에게 애정을 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로 꽃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의 유언 역시 이런 마음씀이 아니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걸 다 주어버리고 훌훌 털고 가신 신부님을 생각하니, 조금 일찍 가신 것이 서운하기는 해도,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이셨다는 생각이 들어 주님의 섭리하심을 조금은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곁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신부님을 기억하며 감사 드립니다.

정직, 정품, 정량
보일러 청소/ 신용카드 환영

백마석유

백등유(석유) 보일러 등유
사무실 통배달
허정철(마태오)
이영선(데레사)
☎ 283-6210/225-5119

전 일 관 광

기쁘고 복된 대희년을 준비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교우 여러분께 하신님의 축복을 빌며 뜻깊은 대희년을 맞아 2000년 1월중에 실시할 로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 (0652) 288-6666

원진도어, 현관문 생산처
(고급현관문, 대문, 중문, 방화문)

노승환(스테파노)
배일순(아가다)

남원시 용정동 166(남원시 입구)
☎ (0671) 625-8338, 야 633-8338
H·P 011-659-6944

디스크 요통 치료기

서울 백병원 인제병원 2년 임상실험 결과 착용후 3일 이내 80%이상 호전
기존 허리벨트와는 전혀 다른 정형용 견인장치 「디스크 닥터」
김종진(스테파노)
다가동복자성당 옆
창의메디칼 ☎ (0652)282-1610-1



◆ 사회교정사목 군산 월례미사

- 때 : 11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나운동 성당

◆ 레지오단원 교육

- 때 : 11월 15일(월)
- 장소 : 인후동 성당

◆ 새사제 연수

- 때 : 11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교구청

◆ 애령회원 피정

- 때 : 11월 20일(토)~21일(주일)
- 장소 : 나바위 피정의 집

◆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 월례미사

- 때 : 11월 20일(토) 오후 4시
- 장소 : 해월리 기도의 집

◆ 빈첸시오회 월례회의

- 때 : 11월 20일(토) 오후 3시
- 장소 : 고산 성당

◆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때 : 11월 21일(주일) 오전 7시
- 장소 : 가톨릭 센터 출발

◆ 신학생 부모모임

- 때 : 11월 21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 가톨릭 센터 3층

◆ 대천해수욕장 성당 미사안내

- 때 :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특전) 매주일 오전 10시
- 문의 : (0452)934-7757~8

◆ 신입생 및 전학생 모집(시각 장애인)

- 대상 : 시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유, 초, 중, 고등부 대상자
- 모집기간 : 수시모집
- 상담문의 : 0441)852-1374 843-1374, 852-1374, 야간(0441) 843-1433
- 중추성모학교(시각장애학교)

성 소 모 임

수 도 회	시 간	장 소	문 의
성 바 오 로 딸 수 도 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바 오 로 딸 서 원	(0652)252-3398
사랑의 씨튼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52)281-0441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52)244-0094
샬트르성바오로수도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창인동 성당 수녀원	(0653)858-4724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학동 성당 수녀원	(0652)284-2276
동성성모회(전주,이리)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평화동 성당 수녀원	(0652)232-5004
살레시오 여자수도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533-2578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삼천동 성당 수녀원	(0652)226-3487
인 보 성 체 수 도 회	매월넷째주일 오후 2시	중 노 송 동 본 원	(0652)284-3231
곤베틀알프란치스코회	매월첫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 2) 793-2070
살레시오 수도회(남자)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 6 2) 512-0332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매월넷째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34)674-1251
전교가르멜수녀회	매월셋째주일 오후 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52)274-9262
경 로 수 녀 회	매월둘째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52)243-1440

권 해 드 립 니 다



루가복음 묵상

이현주/196쪽/5,500원

성서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보다 근본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오늘을 사는 순교자 장병배

56분 /3,000원

진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 신앙의 선조들을 오늘의 세계안에서 어떻게 받고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예화들을 통해서 보여 준다.

전 주 대 항 외 과 (구. 학문외과)

대장 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변비) 전문의 소 우 성(스테파노) 효자동 서도프라자 입구 ☎ (0652) 227-0377

제일 콩나물 식품

농원에서 직접 문농약 제배하여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함(무공해, 아구협, 동이콩나물) 양 동 혁(시몬베드로) 김 분 호(아 네 스) 농원 : 전주역 뒤 장재동 마을 ☎ (0652) 242-6944 (후) 011-679-6944

보석감정·디자인상담 무료
관 보 석
· 미국보석학회 공인감정사(GG-GIA)
· 국가공인 보석감정사(AG-KOREA)
· 귀금속 공예전공
이 동 주(도비아)
박 영 실(헤레나)
서신 2지구 한빛은행 앞 제일상가
☎ (0652) 275-0076, 272-0076

◆ 처음 시작과 같은 정성으로...
동전주 주유소(쌍용정유)
정품정량판매, 배달
황 연 옥(요 션)
윤 성 자(수산나)
소양진안방면초입(우이동 파출소 옆)
☎ (0652) 245-5134, 5123

중 고 자 동 차
신용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차중 위탁, 이전, 매입
동부 우회도로 모아자동차 단차내
전국자동차 매매상사
신 동 섭(바오로)
유 미 나(사비나)
H·P/011-683-3283/253-6636

코 아 입 점
베 네 통
전 세계인의 하이패시얼
이태리 정통 패션
배 월 자 (테레사)
김 정 자 (정혜 엘리사벳)
양 노 섭 (하상 바오로)
☎ (0652) 286-1181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덕진 주임신부 272-5303 사 무 실 272-5302 주임신부 박찬길 김진우
 보좌신부 252-0383 수녀원 272-5304 보좌신부 김기영 김진우
 FAX 271-1937 유치원 252-0384 사목회장이재동

◎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며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대림절 성서 필사 : 온가족이 참여합니다
2. 새 천년맞이 40일기도 : 22일(월)부터
3. 가정방문 일정 : 16일(화) 후 2시, 덕진 20, 21, 26만
4. 금주 모임 :
 - ① 성모승천, 무염서태, 성 마리아, 성모성심 Cu. - 교중미사 후
 - ② 사목회 상임위원회 - 19일(금) 후 8시
5. 구역(반)장 성지순례 : 17일(수) 청양 줄무덤, 보령 갈매목 전 8시 경기장앞 출발
6. 연중 봉헌금(주일헌금, 교무금)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7. 금주 전례 : 해설 - 송귀현, 독서 - 이석관, 김덕희 봉헌 - 덕진 1반
8. 차주 전례 : 해설 - 정영식, 독서 - 이종관, 정남혜 봉헌 - 덕진 2반
9. 금주 청소 : 20일(토) 작은 형제회, 셋별 Pr.
10. 차주 청소 : 27일(토) 대건회, 의덕의 거울 Pr.

□ 지난주 봉헌금 : 1,646,430원 □ 교무금 : 1,848,000원
동산 주임신부 212-3232 사 무 실 212-3231 주임신부 김진화 김기철
 F A X 212-3722 수녀원 212-3233 사목회장 한기철

-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연도대회 : 21일(주일) 후 2시 * 계단체 및 Pr.별로 연습해 주시고 참가 단체는 사무실에 접수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① 노인대학 1월 바자회 - 오늘 ② 사목회장이취임식 - 공식미사 중 * 최승호(마태오)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 사목회장 - 한기철(벤체시오) 수고하시겠습니다 ③ 우리들의 어머니 Cu. - 공식미사 후 ④ 예비신자 성지순례 - 오늘 오후, 치명자산
 2. 주간 모임 : ① 요셉회 - 19일(금) 후 6시 30분 ② 동성회 - 20일(토) 후 6시 3 차주 모임 : ① 천상 은총의 어머니 Cu. - 공식미사 후 ② 벤체시오 - 공식미사 후 ③ 공소미사 - 후 8시 30분
 4. 감사 : 성당외자 방석 - 익명 2분
 5. 사제관 수녀원 신축헌금 : 김용삼 2만, 누계 - 8,058
 6. 청소안내 : 금주 - 순결하신 어머니 Pr., 차주 - 셋별 Pr.
 7. 애령회원 피정 : 20일(토)~21일(주일), 나뉘워 피정의 집
 8. 금주 전례 : 해설 - 박병익, 독서 - 김호중, 임금자 봉헌 - 윤순영, 김정자 9. 차주 전례 : 해설 - 마옥연 독서 - 진영룡, 두현이 봉헌 - 송영섭, 심금옥
 10. 연말이 다가옵니다. 교무금 납부에 관심 바랍니다
 11. 줄도리쌀 모으는 날 : 다음주 사랑의 나눔을 실천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927,170원 □ 교무금 : 1,403,000원
 □ 본당바자회 티켓 2차헌금 : 419,020원

삼례 주임신부 291-8469 사 무 실 291-2018 주임신부 김순태 김인선
 F A X 291-1678 수녀원 291-3196 사목회장 강영만

1.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 전 9시 30분 ② 성모회 - 후 7시
 2. 차주 모임 : ① 안나회 - 공식미사 후 ② 사목회 - 후 7시 ③ 프란치스코회 - 후 2시
 3. 축 임명 : 사목회 임명 - 임기 기간동안 수고하시겠습니까
 고문 - 박노섭(요셉), 김을수(요셉), 사목회장 - 강영만(바로로) 부회장 - 김영두(로마노), 이윤경(비르지나), 총무 - 서승환(프란치스코), 선교 - 고희기(도마), 전례 - 서정만(안토니오) 재정 - 한홍길(안셀모), 교육 - 최경석(가브리엘), 홍보 - 이광일(돈보스코), 청소년 - 서승민(바로로), 사회복지 - 이재구(스테파노) 애령 - 박종선(다니엘), 구역 - 이인식(올리야), 여성 - 김지모(안나) 감사 - 박일성(라파엘), 배기승(스타니슬라오스)
 4. 연중 친목회 : 12월 5일(주일)
 5. 감사 헌금 : 강재순(수산나), 최준길 3만, 익명 5만 * 감사합니다
 6. 성당 청소 : 원후정
 7. 금주 전례 : 특전미사 해설 - 최옥경, 독서 - 배기승, 이인식, 공식미사 해설 - 윤천수, 독서 - 박종선, 박미라, 제물봉헌 - 박정근 부부
 8. 차주 전례 : 특전미사 해설 - 이원규, 독서 - 고희기, 김옥분, 공식미사 해설 - 김세연, 독서 - 최경호, 이영애, 제물봉헌 - 신재삼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810,750원 □ 교무금 : 767,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2778 사 무 실 254-2777 주임신부 박 대 덕 사목회장이재동

- ◎ 오늘은 본당 성소 후헌 주일입니다 : 성소후헌 회원가입 및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주 모임 : ① 요한회 - 14일(주일) 공식미사 후 ② 제대회 - 16일(화) 전 10시 ③ 울뜨레아 - 16일(화) 저녁미사 후
 2. 차주 모임 : 안나회 - 21일(주일) 공식미사 후
 3. 안나회 성지순례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각 구역에서는 담당자들의 회두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5. 전당리 공소 미사 : 17일(수) 후 7시 30분
 6. 영세자(10월 1일) 사진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7.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신동 비사텔 아파트 - 허광원(마태오) 주공아파트 - 한대석(보니파시오)

상삼례 주임신부 291-0790 사 무 실 291-0832 주임신부 오현택 김재갑
 수녀원 291-0833 제헌(현)공소 291-1520 사목회장이재동

1. 오늘 모임 : 울뜨레아, 요셉회
2. 구역(반)장 모임 : 오늘 저녁미사 후
3. 애령회 : 18일(목) 저녁미사 후
4.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 교육 : 19일(금) 후 7시 30분 * 전단원 참석 바랍니다
5. 청년회 모임 : 20일(토) 후 8시
6. 오늘은 연중 33주일 평신도 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7. 주수 감사헌금 : 김복동(바로로) 5만, 쌍정리, 박정근 10만 * 감사합니다
8. 금주 전례 : 해설 - 이상섭, 저녁 - 이미란 독서 - 박필근, 이금민, 안춘자, 제물 - 이기우 부부
9. 차주 전례 : 해설 - 김윤우, 저녁 - 김미진, 독서 - 이명수, 신이록, 김익진, 제물 - 고동선 부부
10. 성당 청소 : 죄인의 의탁, 자비의 모후

□ 지난주 봉헌금 : 747,500원 □ 교무금 : 1,204,000원
송천동 주임신부 254-8560 사 무 실 274-1004 주임신부 한기훈 김진영
 보좌신부 254-8561 수녀원 254-1142 보좌신부 문광섭
 F A X 274-1004 사목회장 문광섭

- ◎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 구일 미사강론 6시 - 박병래 9시 - 문철, 10시 30분 - 문광섭, 후 7시 - 김창곤
1. 오늘의 모임 : 안나회, 대건회, 바로로회 -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16일(화) 후 8시, 소성당 2층
 3. 금주 구역미사 : 17일(수) 전 11시 2구역 1반(서호아파트 101/1205)
 4. 제일 아파트에 입주한 교우님을 파악합니다. 입주하신 분들이나 예정된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5. 오늘은 평신도 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6. 유아세례 : 27일(토) 후 4시 * 26일(금)까지 사무실에 신청바람
 7. 교무금 봉헌은 신자의 의무입니다 월별로 정성껏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8. 금주 본당청소 : 18구역 20일(토) 전 10시
 9. 금주 전례 : 해설 - 박화신, 독서, 봉헌 - 17구역
 10. 차주 전례 : 해설 - 정철우, 독서, 봉헌 - 18구역

□ 지난주 봉헌금 : 1,535,960원 □ 교무금 : 3,149,000원
숲정이 주임신부 276-1320 사 무 실 252-7366 주임신부 김병환 김인선
 보좌신부 252-1606 수녀원 252-9567 보좌신부 김인선
 F A X 252-7366 사목회장이재동

1. 사목회 : 19일(금) 후 8시
 2. 성서 교실 : 매주 금요일 전 10시(신청자 204명)
 3. 금주 모임 : 울뜨레아, 요셉회 - 공식미사 후
 4. 차주 모임 : 꾸리아 - 공식미사 후
 5. 본당 레지오 단원 신앙 강좌 : 11월 15일(월) 후 7시 30분
 6. 부녀회, 제대회, 자모회 : 16일(화) 전 10시
 7. G3 수험생을 위한 미사 : 16일(화) 후 7시 30분
 8. 가정 방문 : 전입 가정을 방문합니다 - 우성아파트
 9. 유아 세례 : 27일(토) 후 7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10. 수녀원 건물 구입 헌금 : 조권선, 3구역 21, 22만 일동 각 5만 김광자(10만) 계 - 46,026,500원
 11. 축이 혼배 : 21일(주일) 12시 신랑 - 허봉진(요한)씨의 자 허현선(바로로)군 신부 - 이종주씨의 내 이숙영 양
 12. 다음주 본당청소 : 3구역 28, 29만
 13. 미사안내 : 즐거움의 원천 Pr.
 14. 금주 전례 : 해설 - 심영무(아오스딩), 독서 - 홍화선, 김화중
 15. 차주 전례 : 해설 - 전현숙(리디아), 독서 - 정완규, 김수진
- 지난주 봉헌금 : 1,728,330원 □ 교무금 : 2,338,000원

- 현대 3차아파트 - 현도석(석문 가블로)
8. 성모동산 협찬 기금 : 이광호(안토니오), 익명 각 20만, 심숙자(엘리사벳), 한은자(마르타) 10만, 감사헌금 : 임판남(안나) 1만원
 9. 교무금 신립과 납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0. 금주 전례 : 배관철(알로이시오)
 11. 차주 전례 : 백기철(요한)
 12. 금주 청소 : 2구역(송림타워, 부근주택) 토요일 전 10시

이주일의 생활말씀 외우고 실천하기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25, 29)

□ 지난주 봉헌금 : 1,098,260원 □ 교무금 : 625,000원